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의 터 위에 (사도행전 2장 34-35)

## 교황 “전쟁에는 진정한 승자 없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2일 가톨릭 기념일인 '위령의 날' 을 맞아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교황청 관영매체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교외에 있는 2차 대전 전몰장병 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미사를 집전했다. 이 묘지에는 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에서 전사한 영연방 군인 426명의 유해가 묻혀 있다.

교황은 강론에서 “전쟁은 언제나 패배한다. 완전한 승리는 결코 없다.” 며 “한쪽이 다른 쪽을 이기지만 그 뒤에는 항상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고 밝혔다.

교황은 “입구에서 전사자들의 나이를 봤는데, 대부분 20~30대였다. 단절된 삶. 미래가 없는 삶이 여기에 있다.” 며 “나는 아들이 전사했다는 편지를 받은 부모와 어머니들을 생각한다. 이렇게 단절된 삶에는 많은 눈물이 담겨 있다.” 고 했다.

교황은 이어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며 “전 세계의 전쟁, 심지어 우리와 가까운 유럽과 그 너머의 전쟁에서 젊은이들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을 중단할 것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종식을 위해 ‘두 국가 해법’ 을 촉구해왔다. 두 국가 해법은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해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는 구상이다.

위령의 날은 '모든 성인의 날' (11월 1일) 이틀 날로,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의 영혼을 기억하는 취지로 지정됐다. 베네딕토회 소속 프랑크클뤼니 수도원에 의해 998년 보편화됐다. 이날 가톨릭교회 사제들은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세 번의 미사를 바칠 수 있다.

교황은 전통적으로 매년 위령의 날에 특정한 묘지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리는 미사를 집전해왔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를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40일 동안 구약의 ‘그리스도’ 에 관한 약속’ 을 풀어주시므로 (눅 24:44) 약속의 끝인 ‘새 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나라’ 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었다(요 2:22)’ 는 것은 다시 말해 ‘부활 이전’ 에는 구약도 예수의 말씀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 ‘영원’ 을 보고 만지고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통해 막연했던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에서 언급된 ‘주께서’ 그리고 ‘내 주에게’ 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으며, 현재 부활하신 예수가 어디에 계시는지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요16:28)’ 는 예수의 말씀이 ‘이야기’ 가 아닌 ‘사실’ 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가 성경대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 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행전 3:22).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



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와 연합한 자는 지금 이곳에서, 오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이 때문에 삶의 역경과 고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가사가 진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열심으로, 탁월한 종교 행위와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자들에 대해 예수는 경고합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었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요 8:21).’ 다시 말해 내 기준과 내 방식,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그 뜻을 유추하여 자기만의 신앙 세계를 구축하는 자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계신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베드로의 눈을 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심 같이! ‘의와 희락, 평강’ 을 누리게 하심 같이! ‘사실’ 을 검증하여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의 터 위에 서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규복 목사-  
(풀러턴 아가페교회)  
(818) 462-1981

#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